

2025년 하반기 거창군 군의원 회의록 기반 의정활동 평가 (2026.3.4 일부 내용 정정)

- 차례 -

I. 군의원 개인 평가

-2025년 하반기 회의록 기반 의정활동 SI 분석-

1. 김향란 의원	3
2. 김혜숙 의원	6
3. 김홍섭 의원	9
4. 박수자 의원	12
5. 신미정 의원	15
6. 신재화 의원	18
7. 신중양 의원	21
8. 이재운 의원	24
9. 이흥희 의원	25
10. 최준규 의원	28
11. 표주숙 의원	31

II. 군의원 비교 평가

1. 출석(횟수)	34
2. 조례대표발의(건수)	35
3. 5분 발언(건수)	37
4. 발언(건수)	39
5. 발언 총량(KB)	40
6. 가치발언 문장수	41
7. 가치발언 비율	42
8. 대군수지적 문장수	43
9. 대군수지적 비율	44
10. 군의원 피고발(건수)	45
11. 종합 데이터	46

[분석방법]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원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 함께하는 거창
- * 자료 :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
- * 분석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제288회 ~ 제290회)

1. 본 평가는 2025년 하반기에 거창군의회가 개최한 제288회 ~ 제290회 회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 본 결과값은 의원의 직책 및 담당 분과에 따른 기회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단, 의장·부 의장·위원장·부위원장·대행 등 진행을 맡은 위원의 진행 발언은 제외하였으며, “네, 예, 아, 어, 음, 그렇군요” 등 단순 반응성 발언도 제외하였다.
3. 의장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따라서 출석 횟수와 발언 총량, 가치발언 수치 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4.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과 종합 평가는 군의원 개인별 회의록 데이터를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5. 순위는 상임위원 회의 횟수 차이를 고려하여 출석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다만 출석 역시 성실성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출석 횟수는 함께 제시한다.
6. 의원별 회의록 발언을 전수 검토하여 발언 건수, 발언 총량(KB), 가치발언 문장수, 대군수 지적 문장수를 산출하였다. 비율 산정은 원칙적으로 KB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발언량이 극히 적은 경우(예: 의장직 수행)에는 문장 수 기준을 병행하였다.
7.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석을 고도화하여 군의원 의정활동을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 평가 한계 및 참고 사항

- 본 평가는 공식 회의록을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로, 의원 개개인의 모든 활동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행사 참여, 언론 인터뷰, 현장 방문 등 비공식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 발언량이 적은 의원의 경우, 회의록 기준으로 활동이 적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의정활동 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의장은 회의 진행과 운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과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회의록 발언량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

<2> 김향란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인공지능 문해력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학교 교육과 성인 재교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인공지능 문해력 디지털 윤리 진로 역량까지 포괄하는 교육 플랫폼 도입을 강조한다.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결해 강사 양성과 취업 연계까지 설계하려는 구상이 드러난다.

2. 국가공인 자격 기반의 인재 양성 전략

자격 취득 지원을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구직과 지역 인재의 증명 체계로 바라본다. 단계형 교육 과정을 제시하며 학생 학부모 성인에게 각각의 효용을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3. 국제연극제 운영 성과의 계량 점검과 재설계

국제연극제 운영을 감각적 평가가 아니라 예산 관객 경제효과 같은 지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산 구조 도비 군비 구성까지 제시하며 연속성 있는 중기 계획과 사후 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한다.

4. 거창 방문의 해 관광홍보와 지역상품 결합

관광 캐릭터를 지역 생산품에 접목해 예산을 줄이면서 확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다. 조형물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사진 촬영과 확산을 전제로 규모와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편이다.

5. 산지 농지 규제 구조와 6차산업 전환

산지와 농지에서 생산한 농임산물의 가공 유통 체험이 제약받는 구조를 문제로 잡고 용도지역 구성과 생산관리 비중을 근거로 제시한다. 보존관리 중심 구조를 전환해 가공유통 기반과 체험시설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책 제안이 핵심이다.

6.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필요성 점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역 소비 유출을 전제로 단합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말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설명을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임위 심사 존중과 사전 소통 문제까지 함께 제기한다.

7. 예산안과 지원사업 중심의 반복 점검 흐름

가치발언 분석에서 프로그램 예산안 지원사업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광진흥 국제연극제 주민자치 등이 상위에 위치한다. 이는 의정활동이 사업 설계와 예산 심사 성과 관리 영역을 반복적으로 다뤘음을 뒷받침한다.

〈3〉 김향란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김향란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교육 문화관광 지역경제 같은 생활과 산업 영역을 넓게 포괄하되, 그 안에서 예산과 사업 운영의 구조를 붙잡고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과 평생학습 의제를 지역 대학 산업과 결합해 인재 양성 취업 연결까지 확장하려는 서사가 분명하다. 교육을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별 과제 해결 도구로 설명하며 정책 목표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 붙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연극제를 대표 의제로 놓고 운영의 일관성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조한다. 단년도 분위기 평가가 아니라 예산 규모 관객수 경제효과 같은 지표 비교를 통해 다음해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복된다. 예산 구조를 제시하며 외부 관객 유치 공연 편성 평가 시점 같은 운영 디테일까지 질문하는 흐름은 축제 운영을 행정의 성과관리 대상으로 다루는 태도로 읽힌다.

지역경제 영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지역 소비 유출과 상권 변화의 맥락에서 설명하며, 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긴급성과 현장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다. 동시에 상임위 심사 결과가 조정되는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까지 함께 짚어 의회 내부 절차와 책임의식을 함께 드러낸다.

농업 임업과 지역개발에서는 산지 농지의 규제 구조가 가공 체험 유통을 가로막는다는 문제 인식이 핵심이다. 용도지역 구성과 생산관리 비중을 근거로 제시하고, 전환 시 기대되는 기반 시설과 체험 모델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 민원 대응이 아니라 규제 구조와 산업 전환을 연결한 정책 제안형 발언으로 분류된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김향란 의원은 발언 건수 423건 발언 총량 186.82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100 키워드 총 카운트 211 강도 2.11로 집계된다. 가치발언 비율은 KB 기준 53.53퍼센트 줄 수 기준 23.64퍼센트로 나타난다. 군수 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57 키워드 총 등장 74 강도 1.30이며 비율은 KB 기준 30.51퍼센트 줄 수 기준 13.48퍼센트로 집계된다.

종합하면 김향란 의원의 하반기 의정활동은 예산 사업 운영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교육 인재양성 문화관광 지역경제 산업전환을 폭넓게 다루는 형태로 정리된다. 강한 단정이나 공격적 표현보다 근거 제시와 대안 구조 제안으로 설득하는 편이며, 지표 비교와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최종적으로 김향란 의원은 교육과 문화관광을 중장기 전략 의제로 끌어올리면서도, 예산과 운영 과정의 책임성을 함께 요구하는 실무형 감시와 정책 제안의 결합형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김혜숙 의원

<1>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예산 심사 중심의 집행 점검

추경 예산과 기금 운용, 사업 편성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집행 방식, 성과 확인 구조를 반복 점검하는 발언이 이어진다. 단순 승인보다 사업 추진 근거와 운영 설명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2. 관광 정책과 방문의 해 전략 점검

관광 홍보와 방문의 해 사업이 실제 방문객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상징물, 콘텐츠 구성, 홍보 방식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발언이 반복된다. 현장 경험을 근거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3. 행사와 축제 일정 운영의 적정성 점검

창포원 박람회와 지역 행사 일정이 다른 행사나 정치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사 추진 과정이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행정의 사전 검토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4. 주민 생활 안전과 이동 편의 개선 요구

현충 관련 시설 접근성, 청소년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아동 급식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발언이 반복된다. 특히 제도 안내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이용 개선을 요구하는 특징이 보인다.

5. 교육 환경과 시설 활용 갈등 조정 요구

학교 인근 시설 계획에서 학생 안전과 주민 이용 간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며, 이용 주체별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민 의견과 학생 보호를 함께 고려한 계획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6.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점검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 증가 원인, 재활 치료 접근성, 관련 교육과 지원 제도의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며 취약계층 지원이 실제 수요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발언이 이어진다. 예산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상과 절차의 현실 적합성을 살피는 태도가 나타난다.

7. 행정 운영 구조와 인력 운용의 필요성 검토 요구

행정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 타 지역 사례와 운영 근거를 함께 확인하며 행정 운영 구조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는지 점검하는 발언이 확인된다. 사업 규모와 행정 운영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명과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3〉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김혜숙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점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광 정책과 주민 생활 분야, 복지 정책, 교육 환경 문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질의와 확인이 이어진 특징을 보인다. 단순 현안 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의 설명 가능 성과 운영 구조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발언이 전개된 점이 특징이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김혜숙 의원은 발언 건 187건, 총 발언량 42.37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33, 키워드 총 카운트 43, 강도 1.30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군수 지적 관련 발언은 문장수 19, 키워드 총 등장 횟수 20, 강도 1.05로 집계된다. 이러한 수치는 회의 참여 빈도뿐 아니라 실제 정책 점검과 사업 운영 확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내용 측면에서는 관광 정책과 방문의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주민 생활 분야에서는 접근성 개선, 돌봄 정책, 청소년과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는 질문이 이어진다.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학교 인근 시설 활용 계획에서 학생 안전과 주민 이용 간 충돌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계획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행정 운영과 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서는 근거 제시와 타 지역 비교를 요구하며 행정 운영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는 재정 집행과 행정 구조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확인하는 역할로 정리된다.

종합하면, 김혜숙 의원의 하반기 의정활동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재정 점검 능력을 기반으로 주민 생활 현안과 정책 운영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평가된다. 관광, 복지, 교육, 생활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 운영의 현실 적합성을 지속 확인하며 행정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김혜숙 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과 현장 체감 효과를 함께 점검하는 실무 중심 활동으로 정리된다.

〈2〉 김홍섭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주민참여 기반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전환

주민참여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주민 선택과 지역 논의가 반영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복 제시한다. 행정 주도가 아니라 주민 제안과 행정 지원이 결합되는 운영 방향을 강조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2. 예산안 구조와 재정 운용의 타당성 점검

예산 편성과 사업 구성의 목적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사업 필요성과 집행 구조가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한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 단위별 실질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려는 접근이 반복된다.

3.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현실성 점검

주민참여예산이 단순 제안 목록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안 내용의 실제 필요성과 주민 참여 과정의 실질성을 확인하려는 발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4. 생활환경과 폐기물 관리 체계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으로 다루며, 시설 설치 이후 운영 주체와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중요하게 다룬다.

5.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창업 공간과 체험 공간 조성, 지역 자원과 관광 동선 연결 등을 통해 상권 회복과 지역 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제시한다. 청년과 문화예술 인력 참여 기반도 함께 언급된다.

6. 농업 전환과 미래 농업 방향

스마트농업과 미래 농업 전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지역 농업을 단순 생산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농업 정책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확인된다.

7. 문화예술 관광과 지역 브랜드 구축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자원을 지역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문화 공간과 공연, 지역 행사 등을 지역 브랜드 형성과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연계하려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3> 김홍섭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김홍섭 의원은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에서 주민참여 기반 행정 운영, 예산과 사업 구조의 타당성, 생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발언을 전개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주민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사업과 시설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설치나 계획 수립보다 운영 이후 실제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확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다. 생활환경 문제 역시 단기적 조치보다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체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체험 공간과 창업 공간을 조성해 지역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구상을 제시한다. 지역 자원과 문화, 관광 요소를 함께 묶어 경제 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방향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업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등 전환 흐름을 언급하며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특징이 확인된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역시 지역 브랜드 형성과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함께 다루는 흐름이 이어진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김홍섭 의원은 발언 건 885건, 총 발언량 285.00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155, 키워드 총 카운트 256, 강도 1.65로 집계되어 있다. 군수 지적 관련 항목은 문장수 199, 키워드 총 등장 횟수 267, 강도 1.34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발언량 대비 핵심 정책 관련 발언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주민참여와 예산, 지역 활성화, 생활 현안 분야가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종합하면 김홍섭 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참여 기반 행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방향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나타난다. 발언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기보다 생활 현안과 장기 발전 방향을 동시에 다루는 흐름을 보이며, 정책 방향 제시와 사업 운영 점검이 병행되는 유형으로 정리된다. 최종적으로 김홍섭 의원의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다루는 균형형 의정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박수자 의원

<1>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환경과 자원순환 중심 의제

생활 쓰레기 감량, 친환경 행사 운영, 다회용기 확산 같은 생활 현안을 반복적으로 다룬 흐름이 두드러진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적용 방식까지 이어서 짚는 경향이 나타난다.

2. 도시재생 운영비와 절차의 정합성

도시재생 관련 시설 운영과 비용 지출의 구조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 따져 묻는 방식이 확인된다. 공공 성격 사업일수록 허가와 운영 질서가 먼저 서야 한다는 관점을 강하게 드러낸다.

3. 지역경제와 상권 유입 장치 설계

전통시장 유입 정책에서 혜택이 실제로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이 뚜렷하다. 소비 유인 장치의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지 않게 구성하라는 방향성이 반복된다.

4. 관광 콘텐츠는 선정 후 관리가 핵심

맛집 선정 사업을 예로 들며 선정 자체보다 사후 관리 체계가 없으면 지역 신뢰가 흔들린다고 본다. 기준을 공개하고 중간 점검과 탈락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하다.

5. 공공기금과 보상은 형평과 지속가능성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처럼 취지에 맞는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일반사업으로 가능한 시설 위주 집행은 지원 본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6. 연구기관 출연은 성과와 인력전략이 동반

화강석연구센터 출연 동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정체, 조직의 활력, 인력 처우와 외부 자원 연계 가능성을 함께 묶어 제기한다. 단순 예산 찬반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방향의 질문으로 전개된다.

7. 예산 설명 책임과 의회 소통의 표준화

예산 심사에서 자료 설명의 밀도와 작성 방식이 일정해야 삭감이나 혼선이 줄어든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신규사업이 클수록 설명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다.

〈3〉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박수자 의원은 생활 현안과 행정 운영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따라가는 유형의 의정활동을 보인다. 환경과 자원순환, 도시재생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주민 체감이 큰 영역에서 반복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예산과 집행 방식, 사후 관리 체계로 이어서 묻는 흐름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맛집 선정 사업에서는 선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정 기준에 따른 점검과 탈락을 포함한 관리 체계가 없으면 지역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를 분명히 세운다. 이런 접근은 사업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지”로 초점을 옮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공공기금이나 지원사업에서는 취지와 집행 항목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같은 경우, 일반사업으로도 가능한 시설 중심 집행은 지원의 본래 의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주민에게 실질 효용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를 바꾸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대목은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제도 목적과 현장 집행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에 가깝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박수자 의원은 발언 525건, 총 발언량 177.93킬로바이트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79, 키워드 총 카운트 104, 가치발언 강도 1.32로 집계되었다. 대군수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109, 키워드 총 등장 횟수 138, 강도 1.27이며, 비율은 킬로바이트 기준 61.26퍼센트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발언량 대비 정책 성격의 질의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표현 방식은 직설적이고 강도가 높은 편으로 읽힐 수 있다. 그 강도는 “현장 체감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와 “부서가 방어적으로 굳어지는 위험”을 동시에 가진다. 그럼에도 박수자 의원의 질의는 대체로 특정 사업의 명분만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재원 구조까지 이어지는 편이라 행정의 체계를 다듬는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박수자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생활 현안 중심의 반복 주제 설정, 지원사업의 취지 일치 여부 점검, 선정형 사업의 사후 관리 요구, 그리고 예산 설명 책임 강화 요구가 한 축으로 묶여 전개된 것으로 정리된다.

5. 신미정 의원

<1>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신미정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예산과 사업구조 점검 중심의 질의 흐름

예산의 증감, 집행 방식, 시설비 편중, 운영비 추계, 용역 규모 등을 연속적으로 짚으며 사업 구조가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발언이 반복된다. 단년도 집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운영 계획과 지속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진다.

2. 행사성 지출과 형식 사업에 대한 재구성 요구

기념행사와 홍보 중심 사업이 실제 주민 체감 효과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며, 동일 재원을 생활 밀착 사업이나 지역 활용도가 높은 공간 조성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청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3. 관광과 문화정책에서 체류형 전략 강조

방문의 해, 지역 축제, 문화행사, 공연시설 운영 등 관광 문화 정책 전반을 다루면서 단순 방문객 증가보다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연결 구조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발언이 반복된다. 홍보 중심 접근보다 실질적 체류 기반 마련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4.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 지속성 검증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조성 과정에서 시설 건립 이후 운영 방식, 이용 규모, 유지비 부담, 관리 주체 문제까지 함께 점검하는 발언이 이어진다. 시설 건립 자체보다 주민 이용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 주민 생활 밀접 분야의 제도 점검 활동

보육, 돌봄, 의료, 교통, 복지시설 이용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 지원 대상 기준, 이용 접근성, 제도 홍보 방식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발언이 이어진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 행정 운영 체계와 책임성 점검

조직 운영 방식, 인력 운영, 조례 구성 요소, 행정 절차의 명확성 등 행정 시스템 전반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는 발언이 확인된다.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운영 방식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7. 지역경제와 산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 지역 산업 기반 정책 등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사업 효과가 실제 지역 경제에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발언이 반복된다. 특정 단체 중심 지원보다 지역 전체에 실질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다.

〈3〉 신미정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신미정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예산과 사업 집행 구조를 중심으로 행정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발언에서는 시설 조성, 행사 운영, 각종 지원 사업, 조직 운영과 같은 정책 실행 단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이후 운영과 주민 이용까지 함께 점검하려는 흐름이 이어진다.

정책 영역 역시 생활 밀착 의제와 지역 발전 의제가 함께 나타난다. 보육과 돌봄, 의료 지원, 교통과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관광과 문화 정책에서는 방문객 유입뿐 아니라 체류 기반 형성과 지역 소비 연결 구조를 함께 요구하는 발언이 확인된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지원 사업이 실제 지역 상권과 산업 구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이어진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신미정 의원은 발언 건수 851건, 총 발언량 201.18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163, 키워드 총 카운트 237, 가치발언 강도 1.45로 집계되었다. 군수 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125, 키워드 총 등장 153, 강도 1.22로 집계되었다. 이는 발언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정책 점검 성격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발언량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실제 의미는 발언 내용의 정책 연결성과 행정 점검의 구체성에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신미정 의원의 의정활동은 예산과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행정 집행 과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점검하고,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 정책이 실제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최종적으로 단발성 문제 제기보다 사업 구조와 운영 단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점검형 의정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신재화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현장 민원 기반의 시설 운영 점검과 이용자 불편 해소

창포원 주차요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원인을 행정 준비 부족과 홍보 부재로 정리하고, 제도 도입은 이용 환경과 수용성부터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 관광지 주차와 접근 도로 등 기반 여건을 우선하는 운영 논리

생태교육장 사례에서 도로 통행과 시설 여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요금 체계만 앞서는 방식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고, 접근성 개선과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3. 광장 조성 등 공공공간 사업의 장기 유지관리와 안전 관점

공공공간은 보기 좋은 조성보다 장기 유지관리, 이용 안전, 주변 환경 영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도 함께 다뤘다.

4.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교함 요구, 낭비 방지 중심의 점검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단가를 촘촘히 맞추고, 집행 과정의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방향으로 질문과 정리를 이어갔다.

5. 도민체전 공동 개최 준비에서 조직 규모와 협력 구조의 균형

서부경남 공동 개최는 협력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사전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조직과 인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은 갈등 소지가 커진다고 정리했다.

6.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홍보 설계의 중요성

상관 침체 현실을 근거로 지원 규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제도는 존재 자체보다 대상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과 안내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봤다.

7. 고향사랑기금의 목적 재정렬과 미래세대 투자 방향 제시

기금은 인구 대응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공적 목적에 맞춰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고, 다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별도 경로로 추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8. 취약계층과 보건의 복지 정책의 지속성, 제도 설계의 현실 적합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특수학교 위탁기간 등 운영 제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조했다.

〈3〉 신재화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신재화 의원의 2025년 하반기 발언은 생활 현장과 행정 운영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구체 사례로 짚고, 제도 설계와 사업 추진의 순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창포원 주차요금과 생태교육장 사례에서는 요금 체계 도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이용 환경과 접근 도로, 안내 체계, 주민 공감대 같은 기반이 갖춰진 뒤에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접근은 주민 체감 문제를 정책 언어로 번역해 행정이 놓치기 쉬운 준비 단계의 빈틈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재정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의 정밀함, 반복되는 재투입의 최소화, 장기 유지관리 관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공공공간 조성이나 시설 정비 논의에서도 단기 미관 중심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 안전, 접근성, 관리 책임을 함께 묶어 판단하려는 태도가 확인된다. 또한 도민체전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 확보가 앞서기보다, 공동 개최지 간 합의 구조와 역할 분담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인근 지자체 관계까지 고려한 추진 방식을 요구했다.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각종 제도의 홍보 설계에 초점을 둔다. 지원 제도는 대상자가 실제로 알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점을 반복해 확인했고, 효도수당처럼 명칭과 기준이 바뀌는 제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공적 목적을 인구 대응과 미래세대 투자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자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별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신재화 의원은 발언 346건, 총 발언량 107.02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75, 키워드 총 카운트 101, 가치발언 강도 1.35로 집계되었다. 가치발언 비율은 KB 기준 70.08퍼센트, 줄 수 기준 21.68퍼센트로 나타난다. 군수 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90, 키워드 총 등장 109, 강도 1.21이며 비율은 KB 기준 84.10퍼센트, 줄 수 기준 26.01퍼센트로 집계되었다. 다만 군수 지적 데이터의 세부 단어 목록은 평가 문서에 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신재화 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 체감 민원과 시설 운영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되, 결론은 제도 설계 순서, 준비 절차, 재정 집행의 정교함, 지자체 간 협력 구조 같은 행정의 기본기로 귀결되는 성격이 강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의 활동은 현안 점검형 질문을 통해 행정의 실행 품질을 끌어올리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7. 신중양 의원

<1>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시 분석

1. 관광벨트 성과 점검과 체류형 전환(생활인구 목표 연계)

관광지를 나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체류를 늘려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핵심 과제로 잡는다. 창포원, 향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산림레포츠파크 등 주요 거점의 방문 흐름이 지역 경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분석 자료를 요구하고, 인근 지자체 협력 관광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상생모델을 함께 묶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다.

2. 숙박과 접근성, 시내 유입 설계(관광의 마지막 퍼즐)

체류형 관광의 병목으로 숙박 기반과 동선 설계를 반복해서 짚는다. 관광버스가 외곽에서 바로 빠져나가며 읍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두고, 도심 정차 공간, 안내체계, 먹거리 동선 같은 세부 설계를 강화해야 효과가 완성된다고 정리한다. 호텔 유치도 기존 업소와의제로섬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우는 전략으로 제시한다.

3. 시설 운영 인력과 운영시간의 재설계(탄력 운영 모델)

관광시설 운영을 시설 확대보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한다. 기간제 인력 증가와 평일 저이용 구간을 함께 놓고 인력 배치가 탄력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이른 시간 이용 수요, 교대 운영, 이용자 관점의 운영시간 조정 같은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4. 공모사업과 전략적 기획 역량(점들을 프로젝트로 연결)

공모사업을 “따오면 끝”이 아니라 사후 운영과 성과로 검증되는 영역으로 본다. 단발성 공모가 쌓이면 현장에 부담과 후속 문제가 남는다는 경험을 전제로, 군 전체의 큰 그림과 연결되는 기획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국비 확보는 평가자가 납득할 인구·유동인구 효과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5. 재원과 기금 운용의 원칙 정립(안전망과 사업 우선순위)

재정 성격이 다른 재원을 같은 기준으로 섞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다. 긴급성과 공공성이 큰 영역은 지역 안전망 구축과 연결해 설계하고, 개인 단위 지원성 사업은 다른 재원과 사업 방식으로 분리하는 사고를 제시한다. 기금의 감소 추이를 장기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나타난다.

6. 문화재단 운영체계와 행정-재단 협업(자율성과 시너지)

문화재단을 단순 행사 수행 조직이 아니라 정책 기획과 창의 실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 필요를 제기한다. 군과 재단이 큰 방향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실행은 재단의 자율과 전문성이 살아나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된다.

7. 주민참여와 지역 프로그램의 실효성(청년·주민자치 중심)

주민자치, 청년 친화도시, 로컬유학 같은 사업을 “행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참여 주체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자고 말한다. 참여 유도를 위해 보상에 의존하는 방식의 확산을 경계하고, 청년층이 주도하는 기획과 운영 구조를 만들 필요를 강조한다.

〈3〉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신중양 의원은 관광·문화·청년·재정 운영을 묶어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 성과”를 핵심 평가축으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동서남북 관광거점이 갖춰진 뒤에도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면 성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반복해 제기하며, 숙박 기반, 읍내 유입 동선, 안내체계 같은 세부 설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완성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또한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의 운영 국면에서 인력 배치와 운영시간이 이용 패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 이용자의 경험을 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정책 방식에서는 단발성 사업을 늘리는 접근보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 성과를 만드는 기획 역량을 강조한다. “점들이 연결된 그림”이 보여야 국비 확보와 지역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고가 뚜렷하고, 사후 운영까지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성격에 맞는 사용 원칙을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이며, 안전망 성격의 사업과 개인 단위 지원성 사업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세우는 방향을 제시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문화재단, 주민참여 사업, 청년 프로그램을 행정 주도 행사로 소모하지 않고, 협의 구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 실행이 살아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한다. 주민참여를 비용 보상으로만 끌어올리는 방식의 확산을 경계하고, 청년층이 실제 주체가 되는 운영 구조를 만들 필요를 강조한다. 이 흐름은 문화·관광을 “소프트웨어”로 고도화해야 지역 변화가 완성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신중양 의원은 발언 561건, 총 발언량 143.26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47, 키워드 총 카운트 60, 강도 1.28로 집계되었다. 군수 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51, 키워드 총 등장 횟수 57, 강도 1.12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활동의 초점이 단순 현안 언급이 아니라 정책 구조, 운영 방식, 예산 집행의 설계와 점검에 놓여 있음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신중양 의원의 의정활동은 관광·문화·청년·재정 전반에서 “하드웨어 구축 이후의 운영 성과를 만드는 설계 능력”을 중심에 두고 전개된다. 시설 확대보다 운영 체계, 동선, 인력, 협업 구조를 재정비해 체감 성과를 만들려는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8. 이재운 의원

■ 이재운 의원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 평가 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거창군의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이재운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이재운 의원은 의장 직책을 수행하며 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의록에 나타난 발언은 주로 의사일정 상정, 발언자 호명, 표결 진행, 정회 및 산회 선포 등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적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운영을 위한 진행성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확보한 회의록 자료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통해 진행 발언과 개인 의정활동 발언을 구분하고, 정책 질의,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 제도 개선 요구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제공된 회의록 범위 내에서는 이재운 의원의 발언이 대부분 의장 직무 수행에 따른 진행 발언으로 확인되었으며, AI 분석 기준에서 개인 의원의 정책 활동으로 분류하여 집계할 수 있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 활동이 없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개별 질의·토론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회의록에서도 이재운 의장의 발언은 회의 개의, 안건 상정, 발언 순서 안내, 표결 진행 등 본회의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의원의 정책 발언 형태와는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회의록 기준 평가에서는 이재운 의원의 발언 중 시민단체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정책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가표에는 '개인 의정활동 발언 없음(진행 발언만 확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평가는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을 기준으로 AI 분석을 통해 산정된 결과임을 함께 밝힌다.

〈2〉 이흥희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상임위 예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수입 공개 및 배분 기준 확정

월천권역 운영 수입, 사과테마파크 위탁 운영 수입처럼 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돈의 흐름을 의회에 보고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단순 보고가 아니라 수입 비율 산정, 기준 확정, 공개 방식까지 함께 제시해 위탁사업의 신뢰 기반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언이 모인다.

2. 위탁 운영 임대료 산정과 단계별 인상 구조

사과테마파크 과원 규모 표기, 수확량 증가에 따른 임대료 체계, 재계약 시점의 산정 논리 등을 촘촘히 따져 묻는다. 초기 수확이 적은 시기와 수확이 늘어나는 시기를 구분해 임대료가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한다.

3. 주민 체감 민원형 현안 대응

대중교통 기사 불친절, 고령 승객 안전, 산포길 추진 갈등처럼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바탕으로 행정의 대응을 촉구한다. 단순 민원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과 교육 체계가 따라야 한다는 책임 논리를 붙인다.

4. 국도비 연계와 매칭 원칙 중심의 재정 운용 시각

농번기 공동급식, 벗짚 비닐랩, 관광상품 개발,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에서 순수 군비 투입의 설득력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조한다. 사업 취지는 인정하되, 재원 구성의 균형과 근거 자료 확보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5. 용역 의존 축소와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맛집 선정 용역처럼 지역의 판단이 중요한 사안에서 외부 용역에 비용을 들이는 방식에 비판적이다. 주민 설문, 업계 의견 수렴, 현장 여론 같은 참여형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6. 제도 개선형 정책 제안

익명 제보 창구 마련, 경계지역 축사 이격거리 공동 기준 설정처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향의 제안을 내놓는다.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 한계를 짚고, 인접 지자체 협이나 시스템 설계로 실제 작동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7. 미래 전략과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 창업 생태계 전략 펀드 조성 제안,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관련 대정부 건의, 거창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 배 보상 법안 관련 건의 등 중장기 의제 발언도 존재한다. 산업 전환과 의료 기반을 함께 다루며, 지역의 구조적 과제를 공론화하려는 성격이 확인된다.

〈3〉 이흥희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이흥희 의원의 발언은 예산과 사업 운영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데 중심이 잡혀 있다. 위탁 운영 수입의 공개 요구, 임대료 산정의 논리 제시, 군비 투입의 설득력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행정이 설명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압박하는 방식이 자주 나타난다. 발언 원문에서도 위탁사업의 수입 보고 요구, 임대료 산정 구조 제시, 사업 근거 자료 요구가 이어진다.

생활 현안 측면에서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곧바로 의제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고령 승객 안전, 동물 관련 민원 안내 체계처럼 생활 현장에 붙어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지원금 투입과 서비스 수준을 연결해 책임 논리를 세운다. 이 과정에서 발언 톤은 비교적 직설적이며, 행정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행동 과제를 제시하는 편이다.

정책 제안 역량도 분명히 보인다. 익명 제보 시스템 같은 행정 장치 개선, 경계지역 축사 설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접 지자체 협의 모델, 지역 창업 펀드 조성 제안 등은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의료 취약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거창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 배 보상 법안 관련 건의처럼 지역의 역사와 공공 인프라 의제도 다룬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이흥희 의원은 발언 112건, 총 발언량 43.62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14, 키워드 총 카운트 37, 강도 2.64로 집계되었다. 군수 지적 관련 지표는 문장수 29, 총 등장 41, 강도 1.41로 집계되었다. 수치만으로 활동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치가 보여주는 방향은 행정 집행의 기준과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 성향과 대체로 맞물린다.

종합하면, 이흥희 의원은 재정과 사업 운영의 타당성, 주민 체감 현안, 제도 개선 제안을 세 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정리된다. 최종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기준과 근거를 명료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생활 현안에서는 현장 경험을 근거로 행정의 실행력을 끌어내는 스타일이 두드러진다.

10. 최준규 의원

<1>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SI 분석

1. 예산 심사 중심의 점검 활동

추경과 본예산 심사에서 여러 부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점검하며 예산이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 두드러진다. 감액 사유와 집행 성과를 함께 살피며 예산 운용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2. 안전과 재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점검

호우 수해, 산불, 생활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확보, 대응 체계, 주민 참여 확대 등 예방 중심 행정이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3.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질의

계절근로자 운영, 친환경 농업 지원, 병해충 대응 등 농가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건과 운영 방식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 생활 인프라 비용 절감 대안 제시

마을상수도,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비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작은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과 행정 운영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을 제안하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 지역경제와 소비 활성화 점검

지역 상품권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운영 조건과 참여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살피는 활동이 확인된다.

6. 교통과 관광 활성화 연계 점검

교통 불편이 관광 유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 구간 운영과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함께 검토하고 지역 방문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7. 지역 현장 민원 기반 행정 점검

지역구 면 단위 생활 불편과 시설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행정의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하며,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주민 체감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 중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3〉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SI 종합 평가

최준규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예산 심사와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된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최준규 의원은 발언 132건, 총 발언량 64.93KB로 집계된다. 가치발언 문장수는 29문장, 키워드 총 카운트는 45회, 가치발언 강도는 문장당 평균 1.55로 산출된다. 가치발언 비율은 KB 기준 44.66퍼센트, 줄 수 기준 21.97퍼센트로 나타난다.

내용적으로는 선제 대비와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발언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안전과 재해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구성과 대응 체계, 주민 참여 확대 조건 등을 점검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운영비와 유지비 같은 지속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설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 운영, 친환경 농업 지원, 병해충 대응 등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지며,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조건을 점검하는 흐름이 보인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상품권 제도가 실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와 운영 조건을 중심으로 살피며, 제도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 활동이 확인된다. 관광과 교통 분야에서도 방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며, 행사 성과와 지역 여건을 다음 정책 운영에 연결하려는 방향의 발언이 이어진다.

군수 및 집행부 관련 점검 성격의 발언은 문장수 18문장, 관련 키워드 총 등장 29회, 강도 문장당 평균 1.61로 집계된다. 이러한 발언은 예산과 사업의 목적, 수요 파악, 운영 방식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정책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향후에는 점검 이후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경우 행정과 의회의 협력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최준규 의원의 의정활동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실무적 점검과 현장 민원 기반의 정책 조정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정리된다. 군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이 중심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농업, 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운영 과정이 현장 수요에 맞게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정리된다.

〈2〉 표주숙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시 분석

1. 문화관광 자원 확장 구상과 연계 전략

창포원 감악산 수승대 가조온천 등 기존 관광거점을 한 줄로 엮고, 여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2. 반려동물 친화도시와 체류형 관광 모델

반려동물 공원을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가족형 체류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보고, 지역 숙박 음식 카페 등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도시 브랜드 전략으로 확장해 제안한다.

3. 도시계획과 주택공급 기반 보전 요구

법조타운 입지로 주거 기능이 잠식되는 문제를 도시 구조 관점에서 다루고, 용도지역 조정과 공급 여력 회복을 통해 생활권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정책 요구를 제시한다.

4. 사업 연계 과정의 투명성 점검

도시 바람길 숲과 폐도 매입을 묶어 추진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 목적과 절차를 분리해 설명하고 의회 보고와 일정 관리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5. 예산과 운영비 부담을 전제로 한 시설 점검

시설 조성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향후 운영비 난방비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 절감 수단과 운영 계획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간다.

6.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편의 개선

폭염 대응, 공공시설 이용환경, 교통 안전, 생활 현장의 불편 등 주민 체감 이슈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제도 취지와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언을 이어간다.

7. 지역행사와 친환경 실천의 실행 설계

다회용기 확산 같은 친환경 방향을 원칙으로 두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운영 동선과 참여 방식까지 포함한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8. 주민자치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점검

행사와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분산될 때 효과가 약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적정성, 지속 가능성, 운영 주체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살핀다.

〈3〉 표주숙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표주숙 의원의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은 현장 운영 점검형 질의와 중장기 구상 제안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운영 주체가 누구이며 유지관리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산 투입 이후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단일 시설의 설치 여부보다 운영비와 관리 체계, 주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논점을 세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책 제안 측면에서는 관광과 도시전략 분야의 메시지가 비교적 선명하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상은 지역 관광자원을 하나의 체류형 코스로 묶고,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유입을 목표로 하는 확장형 전략으로 제시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법조타운 입지로 인한 주거 기능 약화 문제를 주택공급과 생활권 균형의 관점에서 다루며, 용도지역 조정 등 구조적 처방을 촉구한다. 이런 발언들은 단기 민원 대응을 넘어 군정 의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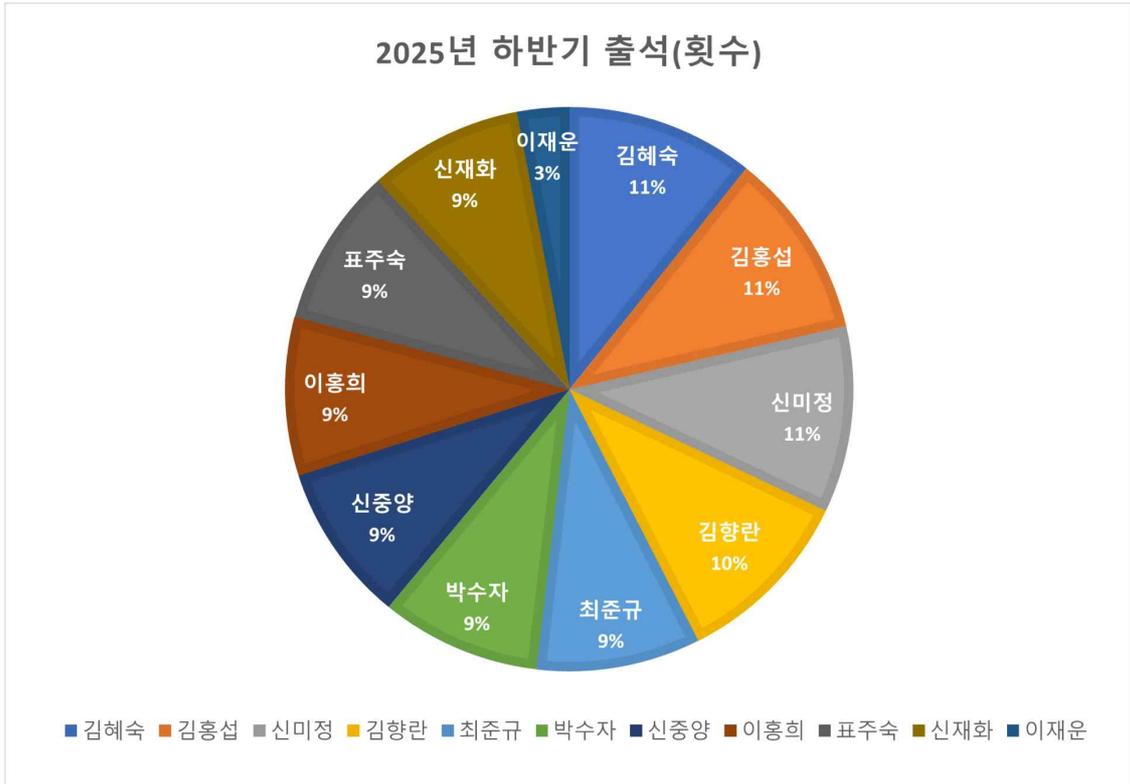
감시와 견제의 방식은 단정적 비난보다는 절차와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 관리 공백 가능성, 예산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을 짚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서로 다른 사업을 한 패키지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줄이려는 태도가 보이며, 의회 보고의 시점과 추진 일정의 정합성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런 접근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설계와 운영의 연결 고리를 드러내는 데 유효하지만, 동시에 논점이 운영 세부로 자주 이동하면서 핵심 쟁점이 넓게 분산되어 보일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남긴다.

정량 지표 측면에서 표주숙 의원은 발언 건 469건, 총 발언량 166.37KB이며 가치발언 문장수 82, 키워드 총 카운트 125, 강도 1.52로 집계되었다. 가치발언 비율은 KB 기준 49.29퍼센트, 줄 수 기준 17.48퍼센트로 나타난다. 군수 지적 관련으로는 문장수 71, 키워드 총 등장 97, 강도 1.37이며 비율은 KB 기준 42.68퍼센트, 줄 수 기준 15.14퍼센트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발언의 양뿐 아니라 점검 성격의 질의가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표주숙 의원은 시설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운영과 관리 관점에서 점검하고, 관광과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정리된다. 현장 체감형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 의제를 함께 끌고 가는 강점이 있으며, 향후에는 분야별 핵심 과제를 더 압축해 연속성 있게 추적할 경우 성과와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II. 군의원 비교 평가

1. 출석(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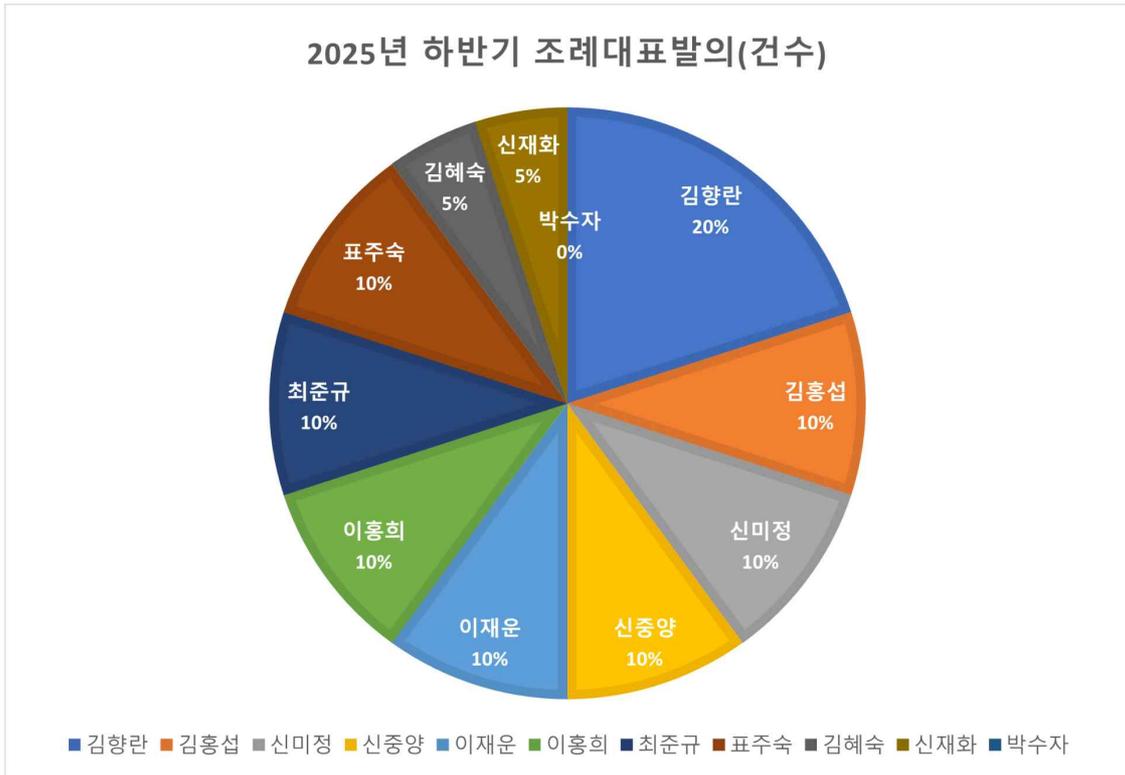
김혜숙	김홍섭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박수자	신중양	이흥희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40	40	40	39	35	34	34	34	34	33	11

- 출석(횟수)은 2025년 하반기(제288회~제290회) 회기 중 12월 31일까지의 분석 결과이다.
- 분과별 회의 개최 횟수가 다르므로, 의원 개인별 출석 횟수는 이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 특히 이재운 의원은 의장직 수행으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 횟수가 적게 나타난다.
- 순위는 출석 횟수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게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 출석은 의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의정활동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위원회 참여의원>

본 회의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흥, 최준규, 표주숙
총무위원회	김향란, 김혜숙,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5명)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섭, 박수자, 이흥희, 최준규, 표주숙(5명)
의회운영위원회	김향란, 김홍섭,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5명)

2. 조례대표발의(건수)



김향란	이홍희	표주숙	김홍섭	신미정	신중양	이재운	최준규	김혜숙	신재화	박수자
3	3	3	2	2	2	2	2	1	1	0

1.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공동발의는 제외하고, 대표발의 의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 조례 대표발의는 군의원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3. 그 결과, 김향란·이홍희·표주숙 의원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4. 다만, 조례 대표발의 역시 단순 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례의 정책성·실효성·군민 생활 기여도를 고려한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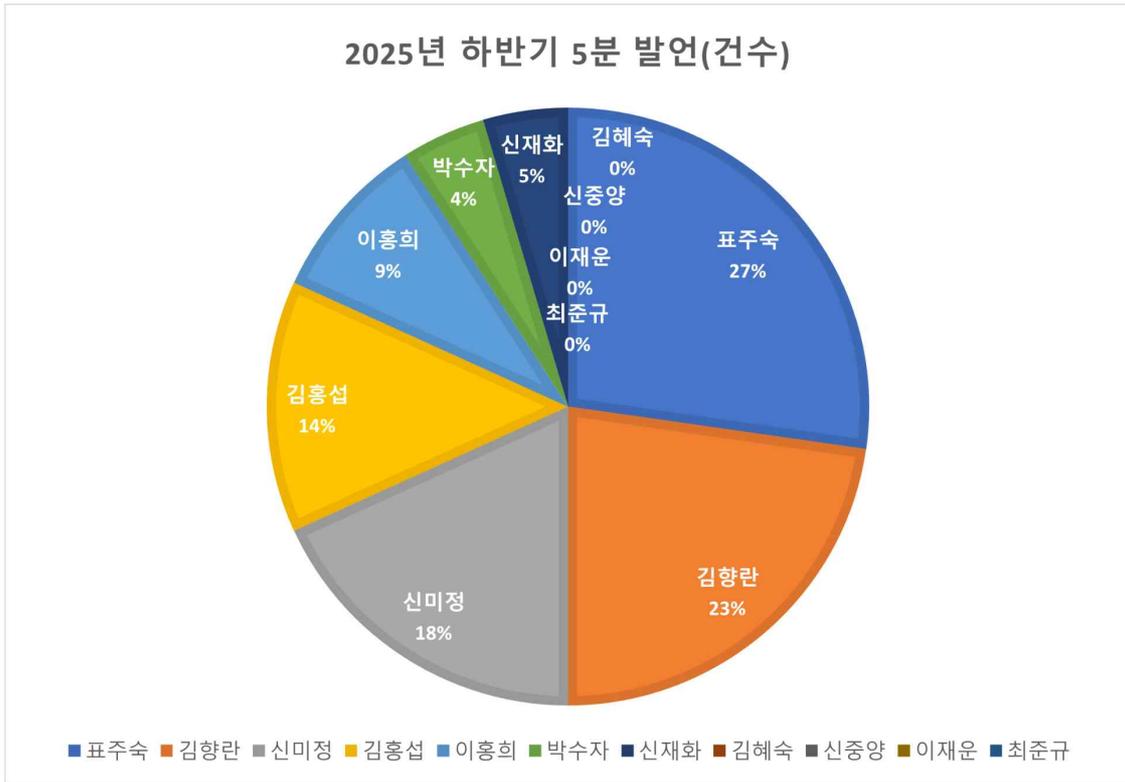
■ 2025년 하반기 거창군 군의원 조례 대표발의 현황

조례대표발의(건수)란, 평가 대상 기간 중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명시된 조례안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수를 의미한다. 예산안, 결의안, 건의문, 규칙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안 등은 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의의원	안건명	소관위원회
김향란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운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흥희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총무위원회
김향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표주숙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총무위원회
신중양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신중양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김홍섭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최준규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신재화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흥희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신미정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표주숙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최준규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향란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흥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김혜숙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총무위원회
김홍섭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표주숙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군의원	발의 건수	조례안 내용 요약
김향란	3건	바둑 진흥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조례 개정,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이흥희	3건	거창군 계획조례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표주숙	3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필수농자재 지원,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김홍섭	2건	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승인,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
신미정	2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신중양	2건	영상문화·영상산업 지원,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이재운	2건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 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
최준규	2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건축조례 개정
김혜숙	1건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신재화	1건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3. 5분 발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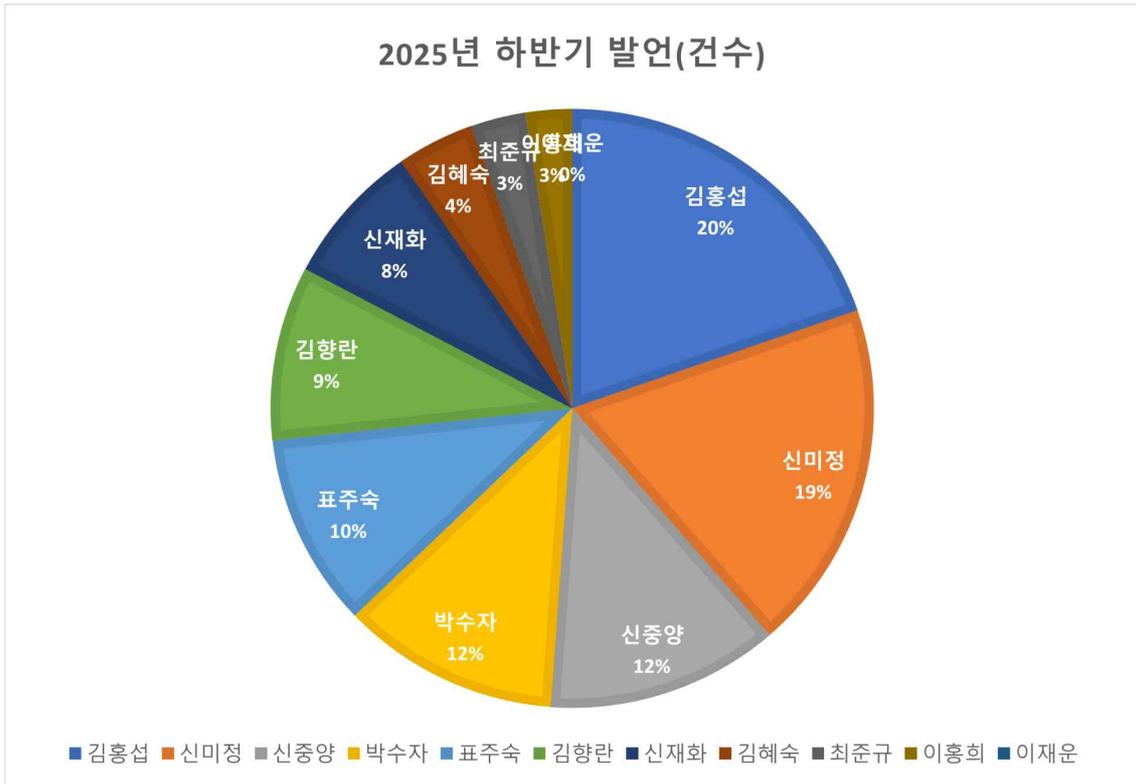
표주숙	김향란	신미정	김홍섭	이흥희	박수자	신재화	김혜숙	신중양	이재운	최준규
6	5	4	3	2	1	1	0	0	0	0

1. '5분 발언(건수)'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 횟수를 의미한다.
2. 표주숙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향란 의원이 5건, 신미정 의원 4건, 김홍섭 의원 3건 발언하였다.
3.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군정 현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5분 발언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다만, 5분 발언은 단순 건수 집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발언 내용의 정책성·실효성·군민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2025년 하반기 거창군의원 5분 자유발언 주제>

회기	발언자	5분발언 제목
제290회 제3차	표주숙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제290회 제3차	김홍섭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제290회 제3차	신미정	AI 시대,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제290회 제1차	김향란	탄소 중립 농업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
제290회 제1차	표주숙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제안
제290회 제1차	신재화	2027년 경남도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고민과 과제
제290회 제1차	이흥희	지자체 경계를 넘는 축사 피해, 협의 기반 해결책을 마련하자
제289회 제2차	신미정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군정을 집중하자
제289회 제2차	표주숙	폐채석장 방치, 주민안전 위협 안전대책 조치 촉구
제289회 제2차	김향란	「2026 거창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감악산 관광 교통 대책 제안
제289회 제2차	김홍섭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제289회 제1차	김향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지역활성화 방안
제289회 제1차	표주숙	법조타운으로 잠식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확충대책 촉구
제288회 제3차	김향란	보전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전환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제288회 제3차	김홍섭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제288회 제3차	표주숙	반려동물 친화도시, 펫 에버랜드 거창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제288회 제3차	신미정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 행정을 바란다
제288회 제3차	이흥희	지역의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하여
제288회 제1차	표주숙	초등교육 쏠림 불균형, 손놓고 계속 방치할 것인가?
제288회 제1차	신미정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288회 제1차	박수자	체육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288회 제1차	김향란	선제적인 AI교육을 위한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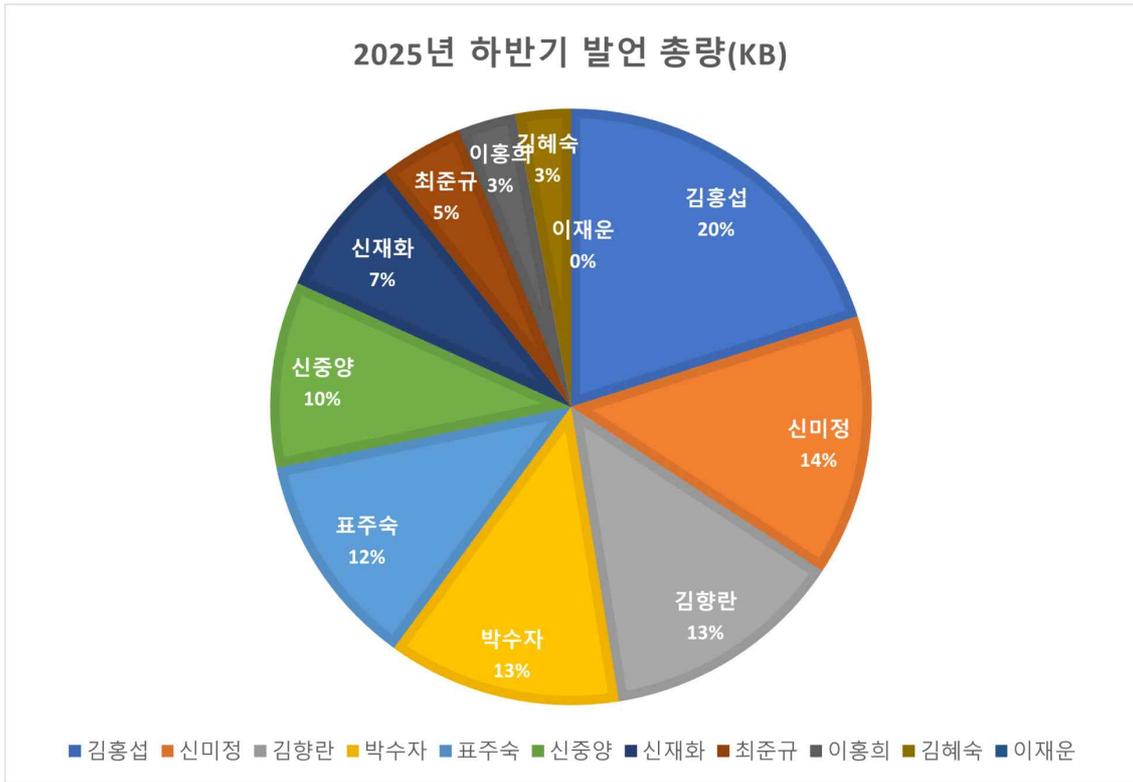
4. 발언(건수)



김홍섭	신미정	신중양	박수자	표주숙	김향란	신재화	김혜숙	최준규	이흥희	이재운
885	851	561	525	469	423	346	187	132	112	0

1. ‘발언(건수)’는 의원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발언은 연구와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의원 활동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의원의 성실성과 정책 참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의미가 있다.
3.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발언을 기록하였다.
4. 발언(건수)은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회의 진행성 발언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개별 의원의 정책 발언만을 집계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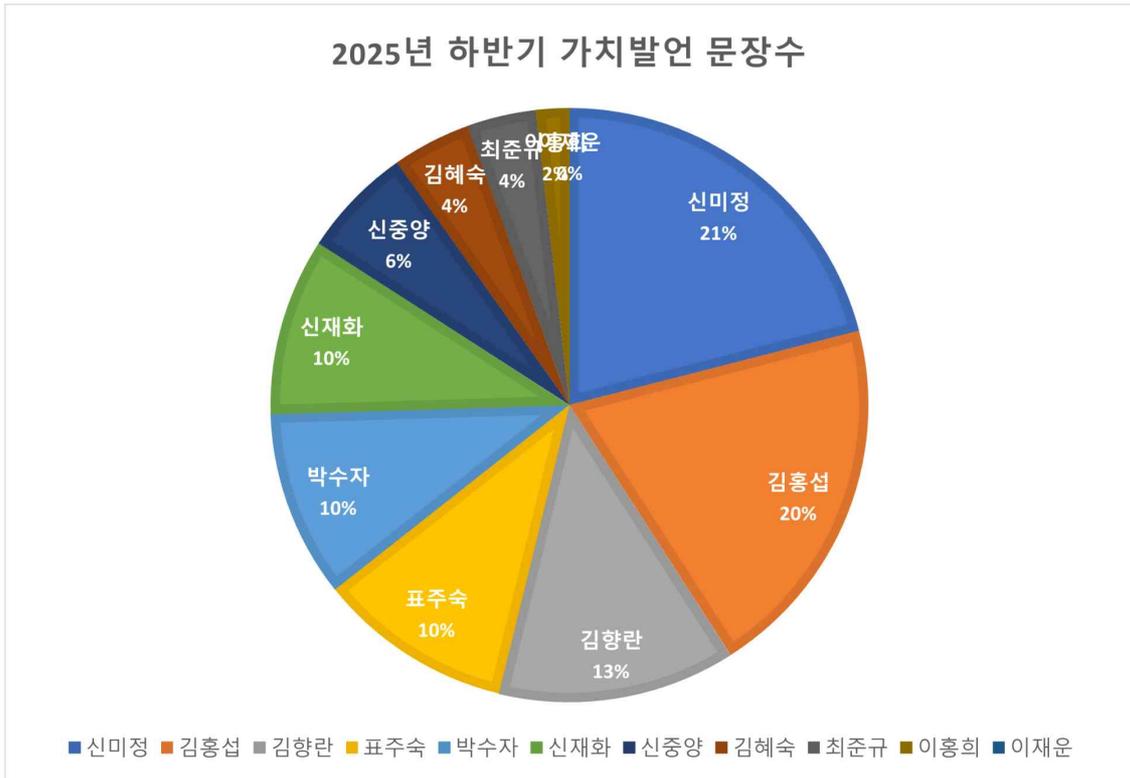
5. 발언 총량(KB)



김홍섭	신미정	김향란	박수자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최준규	이흥희	김혜숙	이재운
285	201	187	178	166	143	107	65	44	42	0

1. '발언 총량(KB)'은 해당 의원이 2025년 하반기에 회의록에 기록한 발언 분량을 전체 텍스트 크기로 환산한 결과이며, 단위는 킬로바이트(KB)로 표시하였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
2.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발언량을 기록하였다.
3. 발언 총량은 의원의 참여 정도와 활동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미가 있지만, 발언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질적 수준이나 논리적 집중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언 총량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발언 건수와 가치발언 지표와 함께 비교해야 한다. 발언 건수와 교차 분석을 통해서는 '짧고 잦은 발언'과 '길고 심층적인 발언'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가치발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내용적 충실도와 정책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4. 발언 총량(KB)은 의장·부의장·위원장 등 회의 진행성 발언을 제외하고, 순수한 의원 개별 발언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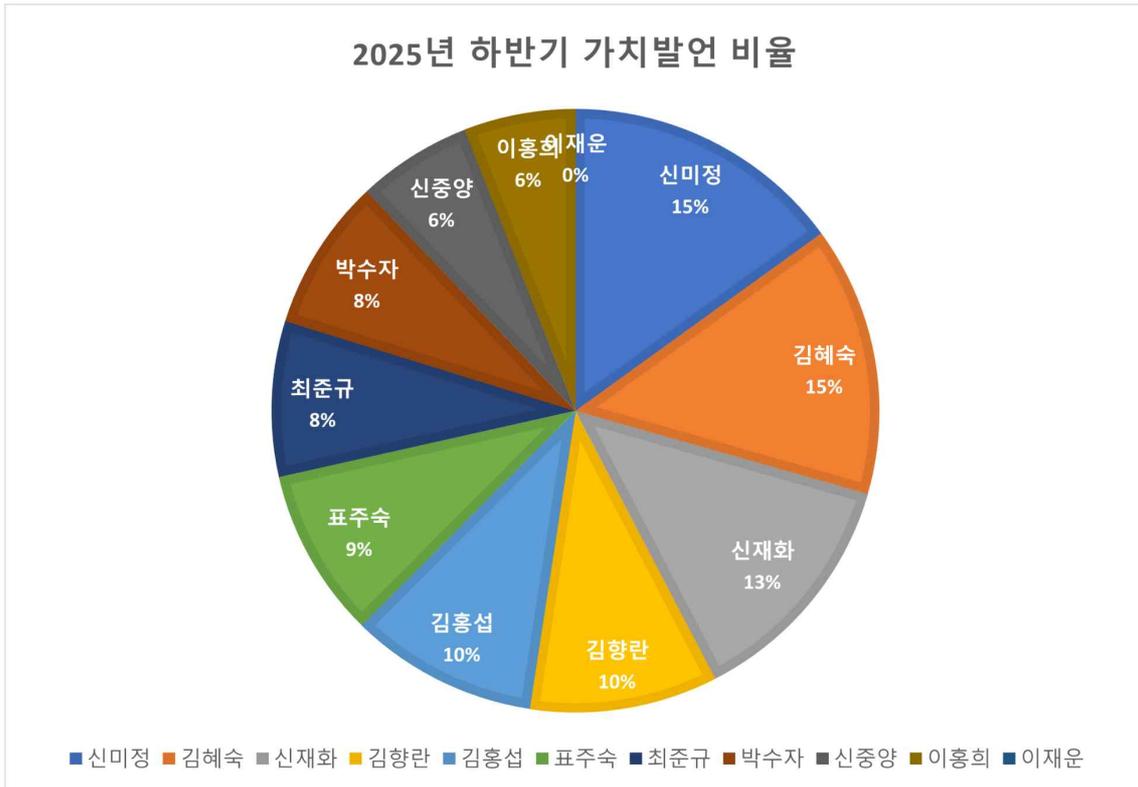
6. 가치발언 문장수



신미정	김홍섭	김향란	표주숙	박수자	신재화	신중양	김혜숙	최준규	이흥희	이재운
163	155	100	82	79	75	47	33	29	14	0

1. ‘가치발언 문장수’는 인공지능이 의원 발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발전·경제 활성화, 교육·문화, 주민 참여·소통, 안전·환경 개선 등 거창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와 패턴이 포함된 문장에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 값이다.
2. 이는 의원 발언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특히 가치발언 문장수는 의원이 얼마나 정책적·발전적 관점에서 발언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 발언량과 구분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가치발언의 강도는 종합 순위에서 별도로 제공하므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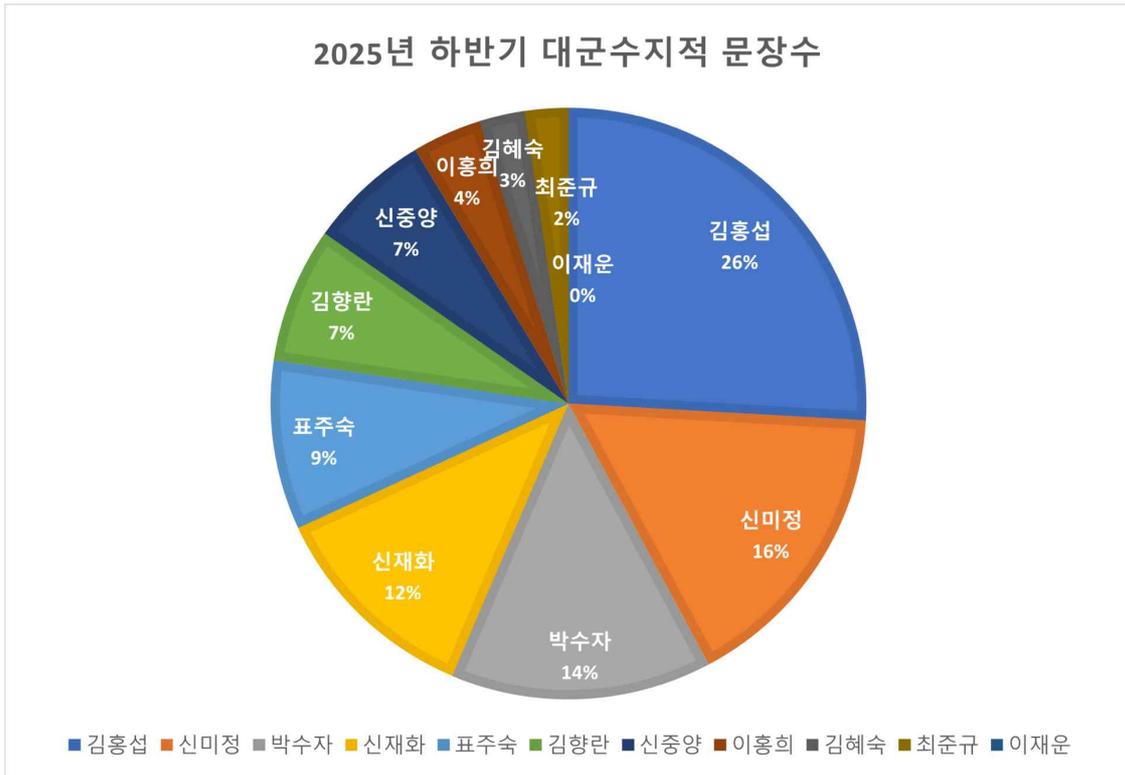
7. 가치발언 비율



신미정	김혜숙	신재화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박수자	신중양	이흥희	이재운
81	78	70	54	54	49	45	44	33	32	0

1. '가치발언 비율'은 해당 의원의 발언 총량(KB) 중 유익한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계산은 가치발언 문장수 ÷ 발언 총량(KB) × 100으로 산출하였다. (발언 총량의 소수점 이하는 생략되어 값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이 값은 의원 발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의되었는지, 또 그 속에 연구와 조사 등 준비 과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3. 가치발언 문장수 기준의 비율은 종합 순위에서 별도로 제공하므로 함께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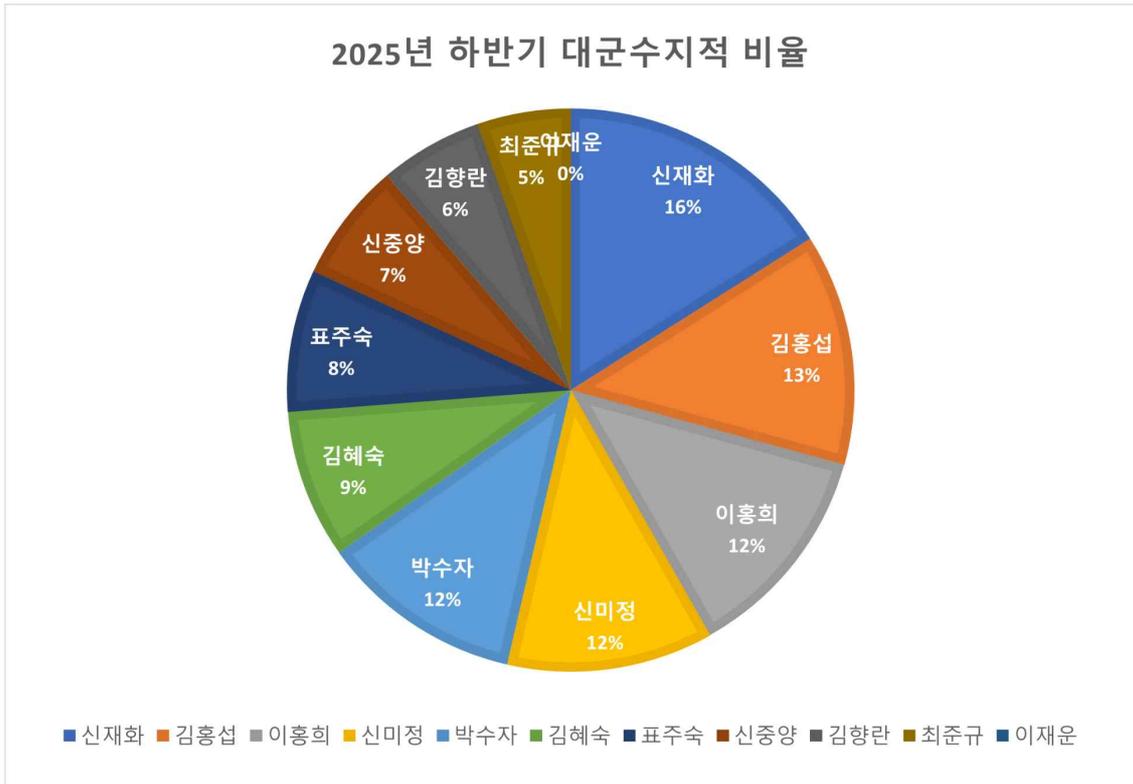
8. 대군수지적 문장수



김홍섭	신미정	박수자	신재화	표주숙	김향란	신중양	이홍희	김혜숙	최준규	이재운
199	125	109	90	71	57	51	29	19	18	0

1.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의원이 군수나 거창군청 공무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수정을 요청한 경우를 인공지능이 발언 키워드와 패턴을 분석해 산출한 값이다. 이는 ‘가치발언 문장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2. 군의원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군수와 집행부(거창군청 공무원)에 대한 견제이므로,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발언이나 반대 의사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회의록에 남은 군수·군청 제출 안건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청 수준은 의원의 견제 역할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3. 분석 결과,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지적 발언을 기록했으며, 이어 신미정 의원과 박수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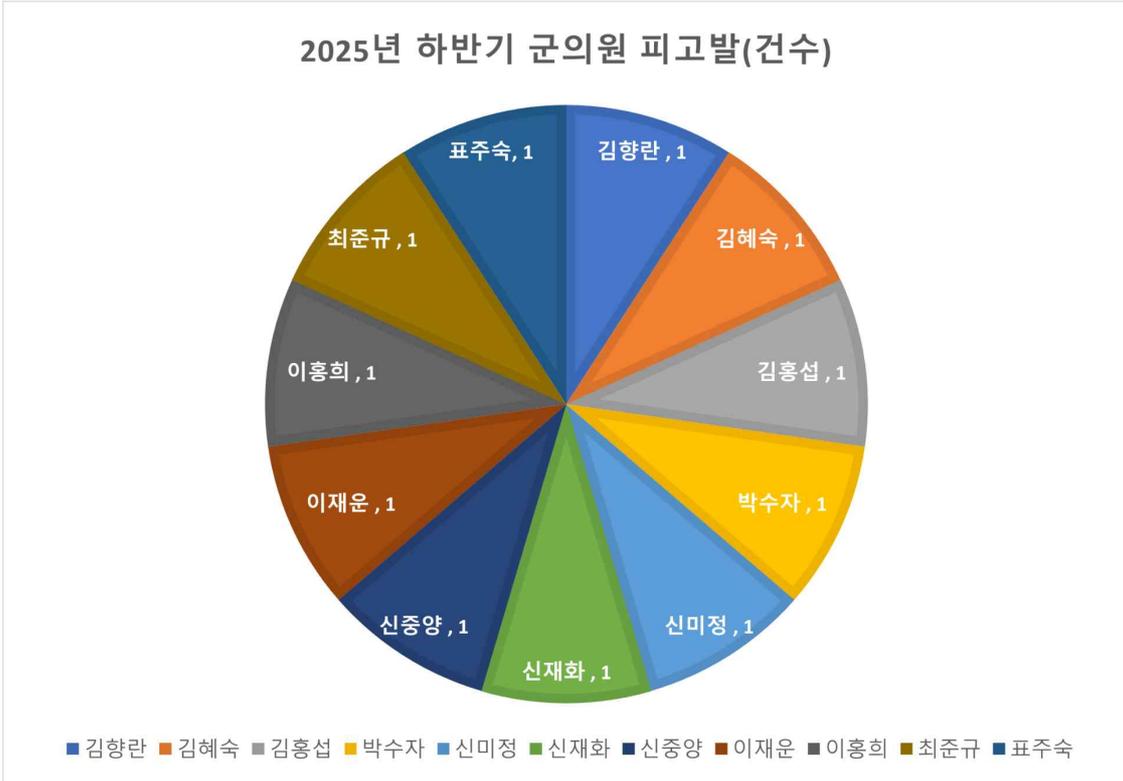
9. 대군수지적 비율



신재화	김홍섭	이흥희	신미정	박수자	김혜숙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84	70	66	62	61	45	43	36	31	28	0

1. ‘대군수지적 비율’은 의원의 발언 총량(KB) 중에서 군수나 거창군청 공무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수정을 요청한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계산은 대군수지적 문장수 ÷ 발언 총량(KB) × 100으로 산출하였다. (발언 총량의 소수점 이하는 생략되어 값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이 값은 의원 발언 가운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0. 군의원 피고발(건수)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흥희	최준규	표주숙
1건										

1. ‘피고발(건수)’는 의원의 직무 또는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제기한 모든 고발 사건 건수를 의미한다.
2.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회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반영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해외출장 사안과 관련하여 거창군의회 소속 군의원 11명 전원이 동일 사건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의원별 기록에 각각 1건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 주민의 고발이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공직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서, 공사익(公私益)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11. 종합 데이터

<2025년 하반기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항목별 평가>

구분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흥희	최준규	표주숙
1. 출석(횟수)	39	40	40	34	40	33	34	11	34	35	34
2. 조례대표발의(건수)	3	1	2	0	2	1	2	2	3	2	3
3. 5분 발언(건수)	5	0	3	1	4	1	0	0	2	0	6
4. 발언(건수)	423	187	885	525	851	346	561	0	112	132	469
5. 발언총량(KB)	187	42	285	178	201	107	143	0	44	65	166
6. 가치발언 문장수	100	33	155	79	163	75	47	0	14	29	82
7. 가치발언 비율	54	78	54	44	81	70	33	0	32	45	49
8. 대군수지적 문장수	57	19	199	109	125	90	51	0	29	18	71
9. 대군수지적 비율	31	45	70	61	62	84	36	0	66	28	43

<2025년 하반기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항목별 정성평가>

구분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흥희	최준규	표주숙
A. 가치발언 문장수	100	33	155	79	163	75	47	0	14	29	82
B. 가치발언 강도	2.11	1.30	1.65	1.32	1.45	1.35	1.28	0	2.64	1.55	1.52
C. 가치발언 비율(KB 기준)	53.53	77.89	54.39	44.40	81.02	70.08	32.81	0	32.10	44.66	49.29
D. 가치발언 비율(문장 수 기준)	23.64	17.65	17.51	15.05	19.15	21.68	8.38	0	12.50	21.97	17.48
E. 대군수지적 문장수	57	19	199	109	125	90	51	0	29	18	71
F. 대군수지적 강도	1.30	1.05	1.34	1.27	1.22	1.21	1.12	0	1.14	1.61	1.37
G. 대군수지적 비율(KB 기준)	30.51	44.84	69.83	61.26	62.13	84.10	35.60	0	66.49	27.72	42.68
H. 대군수지적 비율(문장 수 기준)	13.48	10.16	22.49	20.76	14.69	26.01	9.09	0	25.89	13.64	15.14

1. 이번 데이터는 군의원들의 활동을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통해 수치화·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이를 통해 군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3. 본 자료는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이며,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의록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업로드 속도와 오류 문제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회의록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거창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번 평가 작업을 계기로 군의원들이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5. 이 자료는 곧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며, 군민들이 군의회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6.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이러한 분석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